

#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 정조준

## 도교육청, 교육과정·융합형 인재 등 일반고 역량 지원 박차

올해 전북도교육청이 ‘삶을 가꾸는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전북도내 일반고에 교육과정 다양화, 통섭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대학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

6일 전북도교육청이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95개 일반고를 대상으로 총18억원을 지원하여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활성화, 학교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 학생 진로·직업교육 등을 추진한다. 지원금은 학교 신청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교부한다.

이와함께 소인수 선택 또는 교원 수급, 교실 등 물리적 공간 등의 한계로 인하여 개별학교 단위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교과목을 특정학교에서 개설

해 본교 및 인근 학교 학생들에게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도 확대 운영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인근 지역을 하나의 군으로 묶는 연합형, 거점학교를 지정해 인근 학생들의 개별 참가를 유도하는 개방형, 대학과 연계해 강좌를 개설하는 강좌·위탁형 등 3가지 형태로 운영한다. 3월 중 일반고 희망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해 개설할 계획이며 총5억6천만원을 지원한다.

또 일반고 재학생들의 진로·적성 등을 고려해 진로분야 심화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교내 진로집중과정도 운영한다. 28개 학교 가량을 지정해 문과분화과정, 이과분화과정, 예술분화과정, 외국어과정 등의 형태를 개설하며 1교당 1천5백만원씩 총4억2천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통섭(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프

로그램도 개설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래 사회 인재로써 필요한 통섭적 능력을 갖추도록 하며, 또한 수업에 적용하여 모든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생동감 있는 교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인문학(자연과학·철학) 강좌 45개교, 토론편역 22개교, 수학과학 인성 프로그램 20개교, 학교 자율 프로그램 45개 학교 등에 6억9천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고교 학생자율동아리 활성화 사업도 추진해 자사고를 제외한 130개 고등학교 학생자율동아리에 평균 1천만원씩 총13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별도의 발표회 예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대학 연계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전북대, 원광대, 군산대, 전주대 등 30개 가량의 연구실과 4~5명씩 팀을 이뤄 참여하는 ‘미리 가는

연구실’ 사업과 연구활동 실적을 발표하는 전북 이공계 청소년 학술제가 추진된다. 대학 연계 주말강좌도 운영한다. 일반고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전북도내 전문대학에서 미용, 요리 등 관련 강좌를 수강하게 되며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토요일에 총12회 48시간 운영한다. 10개 강좌 200명 내외의 참여가 예상된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학교기본운영비 내에서 기초학력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해 기초학력 더딤 학생을 지원하고 학습자와 학습도우미를 일대일로 묶는 또래학습나눔 프로그램과 두드림학교도 운영한다.

학업 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비영리법인 등 12개 기관을 지정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며 일반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위탁과정도 운영한다.

/채규남 기자



## 원도심·농어촌 교육발전 협의회 열려

### 7·8일 도교육청서 잇따라 개최... 위원 20명 참석

전라북도교육청이 원도심·농어촌 교육발전 협의회를 각각 7일과 8일 잇따라 개최한다.

7일 오전 11시부터 도교육청 8층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원도심학교 교육발전 협의회는 위원 20명이 참석해 2018년 원도심학교 활성화 기본계획 및 기타 원도심학교 지원방안 등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3년차인 2017년에 원도심학교를 운영한 학교의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기 47개교 전체를 재지정하고 개선 방안으로 1기의 두 가지 유형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노작 체험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2기에는 ‘학교-지역 협력형’, ‘학교 간 협력형’, ‘교육동음형’으로 유형을 변경해서 운영한다.

8일에는 오전 11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가 열린다. 이날 협의회에서도 지역협의회 위원 20명이 참석해 2018년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 및 기타 어울림학교 지원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어울림학교도 2017년에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운영했던 ‘작은학교 협력형’을 다른 학교급 간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초·중등학교 연계형’과 같은 학교급 간 협력하는 기존 ‘작은학교 협력형’으로 확대하고, 기존 ‘네마형’은 ‘마을학교협력형’과 함께 ‘학교-마을 협력형’으로 통합하는 등 유형을 재구성하여 운영한다.

/김민근 기자

## “국제영화제 성공 개최 함께 합시다”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  
전주시지원센터 업무협약  
자원봉사활성화 위해  
공동 노력·발전방향 논의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와 전주시지원센터는 6일 전주시 지원봉사센터 이사회실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상호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주국제영화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더욱 풍성해질 전망이다.

(사)전주시지원봉사센터는 6일 (재)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서 지역사회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 상호 발전 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전주시지원봉사센터는 협약에 따라

약 300여 명의 국제영화제 자원봉사자 인 '지프지기'에 대해 △봉사시간 인정 △활동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자원봉사자 교육을 서로 협조해 추진, 영화제 기간 동안 지프지기 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

한 협력사업을 전개한다고 언급했다.

이충직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자원봉사자들은 전주국제영화제를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존재”라며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이 이번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욱 전주시지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전주국제영화제와 협력할 수 있어 매우 기쁘며 자원봉사 분야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채규남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